

- ◆ (주)미코바이오메드는 지난 2021년 11월 3일 말레이시아 보건부에 코로나19 분자진단 장비 100세트를 수출, 이를 말레이시아 7개 국제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에 설치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습니다.
- ◆ 그런데 2021년 11월 11일 해당 수출 건 관련, 2곳의 언론매체에서 추가로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.

언론사	매일일보	이투데이
기사 URL	<a href="http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74313">http://www.m-i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74313</a>	<a href="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077177">https://www.etoday.co.kr/news/view/2077177</a>

- ◆ 개제 당시 두 언론사 기사에는 당사의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이 “연간 3천억원” 규모에 달한다고 잘못된 보도를 하였습니다.
- ◆ 그러나 지난 2021년 11월 3일 당사가 배포한 원 보도자료에는 수출 규모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◆ 지난 11월 초 실질적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와 수출 계약된 제품, 수량, 그리고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품명	수량	금액
Veri-Q PCR 316 (PCR 장비)	100대	
Veri-Q PREP M16 (핵산추출장비)	100대	
코로나19 분자진단 시약	초도 물량	
TOTAL		USD 1,900,000.00

- ◆ 따라서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 건 관련, 현재까지 당사가 수령한 수주 금액은 “연간 3천억원”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상기 두 언론사가 잘못된 보도를 인정하고 2021년 11월 11일 18시 이후, 수출 규모 “연간 3천억원” 이라는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하며 정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◆ 하지만 최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워드코로나 시행과 함께 잇따라 국경을 재 개방하며 말레이시아의 공항 출입국자 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상기 기재된 분자진단 장비 100세트와 코로나19 시약은 초도 1차 물량입니다. 향후 말레이시아로부터 더 큰 규모의 진단 장비 및 소모성 진단 시약의 수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. 또 당사 장비를 사용하여 구축한 말레이시아 공항 방역 모델이 주변 동남아 국가들로도 확장되어 수출 규모가 점차 증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
- ◆ 당사는 계속해서 말레이시아 보건부로부터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시약 주문이 들어올 것을 기다리고 있으며, Purchase Order를 수령하는 즉시 정확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공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